20세기 중국문명과 ≪新民叢報≫의 지위*

車泰根**

<목 차>

1. 한세대의 교사
2. 중국최초의 국민잡지
3. 근대적 교양잡지: 학술, 정보와 취미의 양성
4. 이론에서 실제연구로: "신민"의 종결
5. 결론: ≪신민총보≫의 의미와 영향

"25년 동안 단지 세 개의 잡지만이 세 시대를 대표할 수 있으며, 세 세대를 창조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시무보(時務報)≫이고 또 하나는 ≪신민총보(新民叢報)≫이며 다른 하나는 ≪신청년(新青年)≫이다. ≪민보(民報)≫와 ≪갑인(甲寅)≫은 이 세 잡지에 미칠 바가 못 된다." (<후스즈의 서신(胡適之的來信)>, ≪노력주보(努力周報)≫, 第75期, 1923년10월 21일, (增刊第1版))

1. 한세대의 교사

20세기 초 중국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서적들은 수없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 한 권을 꼽는다면 아마 ≪신민총보≫일 것이다. 1923년 가오이한(高一涵), 타오멍허(陶孟和) 등에게 자신의 병으로 인해 ≪노력(努力)≫ 잡지의

www.kci.go.kr

* 본 논문은 인하대학교 2012년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 인하대학교 국제언어문화학부 조교수.

정간계획을 전하면서, 후스는 20세기 초 25년 동안 중국을 대표하는 세 잡지로 ≪시무보≫, ≪신민총보≫와 ≪신청년≫을 뽑았다. 나아가 그는 이 세 잡지가 각각 세 시대를 대표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 잡지들이 중국의 근대 역사에서 각각 중요한 운동시기와 연관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한 것처럼 보인다. 우선 ≪시무보≫는 무술변법 운동과 관련이 있고, ≪신청년≫은 5·4 신문화 운동과 연관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신민총보≫는 시기적으로 보아 신해혁명과 관련이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인 역사인식으로는 신해혁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잡지는 소위 혁명파 기관지였던 ≪민보≫였다. 그리고 ≪신민총보≫는 오히려 혁명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서 ≪민보≫의 주요 논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잡지로서의 ≪신민총보≫의 위상은 단순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쉽게 설명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후스는 또 세 세대의 창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신청년≫의 영향하에 출현한 5.4세대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시무보≫와 ≪신민총보≫ 역시 이와 견줄 만한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무보≫가 1896-1898년에 발간되었고, ≪신민총보≫가 1902-1907년에 발간된 것을 고려하면 ≪시무보≫와 ≪신민총보≫가 각각 새로운 가치관과 경향을 지닌 세대를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시무보≫가 변법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중심으로 무술변법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무술변법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적 조류를 전환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그 영향 하에서 출현한 새로운 지식인들은 20세기 초 새로운 사상과 문화적 학습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해 갔다. 특히 무술변법의 실패로 인한 중요인물의 일본망명과 청일전쟁 이후 일본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중국인 일본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일본발 새로운 지식은 1899년 이후 중국의 지식계에 또 다른 변화를 야기하였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것은 바로 량치차오가 주편을 맡은 ≪청의보(淸議報)≫(1898.12.23)와 일본에서 중국유학생이 발간한 ≪개지록(開智錄)≫(1900.11.1), ≪역서휘편(譯書彙編)≫(1900.12.6) 등과 같은 잡

www.kci.go.kr

지들로 주로 자유, 민권 및 국가사상과 같은 정치사상의 소개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1] 이러한 잡지들은 그 내용과 언어적인 측면에서 이전과 확연히 다른 신지식을 제공하였으며, ≪시무보≫에 이어 새로운 담론의 전환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했다. 그러나 정치적 변혁과 이를 위한 정치이론의 소개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2]는 점에서 이들 잡지는 정치개혁에 주안점을 두고 있던 ≪시무보≫의 담론과 일정한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후스는 1902년에 창간된 ≪신민총보≫가 ≪시무보≫와 비교하여 어떤 새로운 전환을 이루었다고 본 것일까? 후스는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다. 다만 그의 자술 속에서 언급한 그의 개인적인 독서사를 고려할 때 적어도 두 가지측면에서 설명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량치차오 문장의 특징과 영향력이다. 후스는 1905-1906년 사이 상하이의 청중학당(澄衷學堂)에 재학하면서 여러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저서는 바로 앤푸(嚴復)와 량치차오(梁啓超)의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에 의하면 앤푸의 문장은 너무 고아(古雅)해서 청소년들에게 량치차오의 문장만큼 영향력이 있지 않았다. 그에 비해 "량치차오의 문장은 매우 평이하고 명확할 뿐만 아니라 진지하고 풍부한 감정을 지니고 있어서 그의 문장을 읽은 사람은 그의 길을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그를 따라서 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3] 두 번째는 바로 량치차오 사상의 내용적 측면이다. 그는 자술에서 자신

1) ≪개지록(開智錄)≫은 ≪청의보≫ 편집보조를 맡고 있던 정관이(鄭貫一)가 펑마오룽(馮懋龍), 펑스롼(馮斯欒) 등과 더불어 1900년 12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반월간 잡지로 발간하였다. 잡지내용은 민권사상과 혁명사상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것이었는데, 보황회의 기관지였던 ≪청의보≫의 판매망을 통해 판매되다 보황회의 문제제기를 받았으며, 1901년 3월 제6기로 종간되었다. ≪역서휘편(譯書彙編)≫은 일본 중국유학생 조직인 여지회(勵志會)의 회원인 지이후이(戢翼翬), 양팅둥(楊廷棟) 등이 1900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발행한 월간잡지로서 주로 몽테스키외, 루소, 스펜서 등의 정치사상을 번역소개 하였으며, 1903년 4월에 ≪정법학보(政法學報)≫로 개칭하였다.

2) 예를 들어 ≪역서휘편≫의 발간 종지는 "구미의 정법(政法)사상을 중심적으로 편역・소개하는 것"으로서, 국가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각국 제도의 표면적인 겉모습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 그 학문적 이치를 깊이 파고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당연한 이치는 알더라도 그 까닭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 수 없게 된다"라고 보았다. <譯書彙編發行之趣意>, ≪譯書彙編≫, 1902年第2卷第1期.

3) 胡適, ≪四十自述≫, 上海亞東圖書館版, 民國二十二年(1933), 49쪽.

이 량치차오로부터 감명 받았던 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신민설(新民說)>과 <중국 학술사상 변천 대세(論中國學術思想變遷之大勢)>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량 선생은 스스로 호를 '중국의 신민(新民)', 또는 '신민자(新民子)'라고 했으며, 그가 편집한 잡지도 ≪신민총보≫라고 할 정도로 바로 '신민'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했다. '신민'의 의미는 바로 중국의 민족을 개혁하려면 이 거대한 늙은 환자인 민족을 신선하고 활달한 민족으로 개조해야 한다는 것이다.……신민설에 관한 여러 편의 문장은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 주었다. 나는 그것을 통해 중국 이외에 또 매우 고등의 민족과 고등의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게 되었다."[4]라고 하였다. 여기서 <신민설>과 <중국 학술사상 변천 대세>는 모두 ≪신민총보≫에 연재되었던 중요한 문장들이었다.

≪신민총보≫에 대한 이러한 반응은 후스의 개인적인 경향이 아니라 당시 많은 독자들의 반향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황준셴(黃遵憲)은 그 잡지에 대해 량치차오가 그 전에 편집했던 ≪청의보≫보다 훨씬 뛰어나며 그 문장은 쇠나 돌과 같은 심장의 소유자라도 능히 감동시킬 수 있으며, 고래로 그 보다 더 큰 힘을 지닌 문장은 없었다고 하였고,[5] 샨시(陝西)의 우미(吳宓), 쓰촨(四川)의 우위장(吳玉章), 난징(南京)의 져우쭤런(周作人), 일본에서의 루쉰(魯迅), 후난(湖南)의 마오쩌둥 등이 20세기 초 가장 즐겨 읽던 책이 바로 ≪신민총보≫였다.[6] 이들 독자들은 량치차오의 주요문장을 거의 암송하거나 그 어조와 문체를 모방하기도 했으며,[7] 혹은 비밀 판매소나 학당에서 혹은 상하이나 일본에서 가족이 부쳐주는 방식을 통해 ≪신민총보≫를 읽었다. 20세기 초 수년간 이러한 중국 청소년들의 독서를 통해서 볼 때, ≪시무보≫가 새롭게

4) 胡適, 앞의 책, 49~52쪽.
5) 黃公度, <致飮冰室主人書>(光緖二十八年四月), 丁文江, 趙豊田編, ≪梁啓超年譜長編≫,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3, 274쪽.
6) 吳宓著, 吳學昭 整理, ≪吳宓自編年譜(1894-1925年)≫, 三聯書店, 1995, 47쪽; ≪吳玉章回憶錄≫, 中國青年出版社, 1978, 15쪽; 周作人, ≪周作人文選:自傳·知堂回想錄≫, 群衆出版社, 1999, 96쪽; 菲力普·肖特, ≪毛澤東傳≫, 中國青年出版社, 2004, 38쪽 참고.
7) 康國雄, 何蜀 著, ≪我的罪名蔣介石的干儿子≫, 中共党史出版社, 2005, 409쪽.

이끈 사회사상과 지식의 변화가 한층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신민총보≫는 또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정치적 각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과 심미의식, 문명의식, 세계 인식을 포함하여 전면적인 전환을 의미하였다.

2. 중국 최초의 국민잡지

≪신민총보≫는 1902년 2월(光緖28년1월)~1907년 11월(光緖33년10월) 일본 요코하마[8]에서 반월간으로 발행되었다.[9] 편집 겸 발행인은 요코하마 보황회(保皇會)의 회장이었던 펑즈샨(馮紫珊: ?~1921)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주편은 량치차오였다. ≪신민총보≫는 발행 첫 호부터 많은 독자들의 반향을 일으켜 창간호는 4차례 재판되었고, 1902년 말에는 잡지의 발행부수가 9000부에 달했으며 가장 많을 때에는 1만4천부에 이르기도 하였다.[10] 판매망도 중국내 각 지역 외에도 일본, 조선, 미국, 남양 등 44여 지역에 87여 곳의 판매소를 가지고 있었다.[11] 뿐만 아니라 청 조정의 금서조치에도 불구하고,

8) 신민총보사의 주소지는 일본 요코하마(橫濱) 야마시타쵸(山下町) 152번지(32호까지), 야마시타쵸 160번지(33~96호)였다.

9) 처음에는 매월 삭망일에 발간되었으나 25호부터는 14, 29일에 발간되었으며 총 96호가 발간되었다. 6년간 반월간으로 발행된 것에 비해 총 호수가 적은 이유는 37호까지는 정기적으로 발간된 반면, 38호부터는 부정기적으로 발간되었기 때문이며 실제로는 4년 정도의 발행량에 해당된다. 한편 매 호 분량은 6만자 정도로 이전의 ≪만국공보(萬國公報)≫, ≪시무보≫, ≪청의보≫의 2배 정도였으며, 우편형식으로 판매된 잡지의 가격은 매 호 2角5分(일 년 정기구독료는 5元-해외지역은 6元-)이었다.

10) <上海四馬路新民叢報支店啓事>, ≪申報≫, 光緖三十二年三月一日(1906년 3월 25일자 광고).

11) 주요 판매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江蘇(24), 浙江(8), 安徽(1), 四川(4), 湖南(2), 山西(1), 湖北(2), 江西(4), 廣東(9), 直隸(4), 北京(1), 福建(2), 山東(1), 홍콩(5); 해외: 일본(4), 조선(1), 버마(1), 남양지역(5), 호주(4), 하와이(1), 미국(4), 캐나다(1) 등. 이중 조선에는 인천의 화교잡화상 이태호(怡泰號)에서 대리판매 하였다. 신승하는 조선에 한성신보관(漢城新報館)과 인천의 이태호(怡泰號) 두 곳에 판매처가 있다고 했으나 이는 ≪신민총보≫의 판매처가 ≪청의보≫의 판매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

"매 호가 출판될 때마다 중국내에서는 수십 종의 번각본이 출현"[12]하였는데, 그 결과 장펑위앤(張朋園)은 ≪신민총보≫ 매호 평균 독자수를 18만 명 정도로 추산하기도 하였다.[13]

그러나 ≪신민총보≫의 역사적 의미는 그 외형적인 영향력보다도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더 두드러진다. 왜냐하면 ≪신민총보≫는 당시 발간되던 여러 잡지류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새로운 잡지이념을 표방하며 발간되었으며, 중국 잡지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그 전환의 실질 내용과 의의는 ≪신민총보≫ 창간호의 "본보고백(本報告白)"에서 명확히 선언하고 있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청의보≫ 종간호가 된 제100호 기념 논문에서 이미 잘 나타나 있다.[14]

지금까지 많은 논자들이 ≪신민총보≫의 발간 계기로서 1901년 12월 화재로 인한 ≪청의보≫의 정간을 들고 있지만,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청의보≫의 정간은 화재가 한 계기이기는 했지만 더 주요하게는 새로운 관념의 잡지발간 기획과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5] 실제로 ≪청의보≫제100호

인다. 신승하, <舊韓末 愛國啓蒙運動時期 梁啓超 문장의 전입과 그 영향>, ≪亞細亞研究≫ 제100호, 1998. 12, 222쪽. ≪청의보≫의 판매처는 그 잡지 제4책 광고를, ≪신민총보≫의 판매처는 그 잡지 제24호 광고를 참고.

12) 梁啓超, ≪清代學術概論≫, 北京: 東方出版社, 1996, 77쪽.

13) 張朋園, ≪梁啓超與清季革命≫, 吉林出版集團, 2007, 188, 198쪽. 참고로 ≪청의보≫의 최고 발행부수는 4000부 정도였다. 장펑위앤은 ≪신민총보≫의 매호 평균 발행부수를 9000부 정도로 추산하고 실제 독자는 그것의 20배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신민총보≫에서 자체적으로 독자의 수를 추정한 바가 있는데, 독자수를 발행부수의 10배로 잡고 있다. "본 잡지를 발행한지 수 개월도 안 되어 인쇄량이 2천부에서 5천부로 증가했으며, 독자의 수도 2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증가되었다"(社員某, <雜俎・尺素五千紙>, ≪新民叢報≫ 第11號, 光緒二十八年六月一日). 또 1903년 ≪저쟝조(浙江潮)≫가 항저우(杭州)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신문잡지 구독상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간지와 대중잡지를 제외한 종합잡지 중에서 ≪신민총보≫가 단연 독보적이었다. 당시 항주지역 주요 구독 잡지와 그 주요 독자층 및 구독 수는 대략 다음과 같다. ≪中外月報≫: 500부(공공기관, 상인, 학당, 일반인), ≪蘇報≫: 50부(학당), ≪新聞報≫: 230-240부(공공기관, 상인, 학교, 일반인), ≪申報≫: 500부(공공기관, 상인), ≪杭州白話報≫: 700-800부(일반인), ≪新民叢報≫: 200부(학당), ≪評論彙編≫: 250부(학당). <杭城報紙銷數表>,≪浙江潮≫, 第三期, 1903年4月17日.

14) 梁啓超,<本館第一百冊祝辭並論報館之責任及本館之經歷>, ≪清議報≫, 第一百期, 1901. 12.21.

15) 杜新艷, <≪清議報≫停刊考>, ≪雲夢學刊≫ 第29卷5期, 2008, 09, 25~31쪽. 두신앤

www.kci.go.kr

에서는 종간계획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청의보≫의 개조내지 새로운 이념에 바탕한 잡지구상을 밝히고 있었으며, 그 구상은 ≪신민총보≫의 발간사라고 할 수 있는 "본보고백(本報告白)"과 완전히 부합하고 있다.

<본관 제100호 기념사 및 신문잡지사의 책임과 본관의 역사를 논함(本館第一百冊祝辭並論報館之責任及本館之經歷)>의 주요 내용은 신문잡지의 중요성과 책임, ≪청의보≫의 특색, 향후 중국 신문잡지의 발전방향을 논하고 있다. 이 기념 논문에 따르면, 우선 신문잡지의 경우 종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종지는 "국민 최대다수의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또 "언어문자를 통해 미래의 세계를 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신문잡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고 독자층이 엷으며, 신문잡지를 읽는 사회적 기풍이 형성되지 않아 양질의 신문잡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신문잡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상과 학식이 일천하고 재능이 부족하여 천하의 마음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신문잡지는 여전히 유치한 단계에 처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그는 자신이 주편했던 ≪시무보≫와 ≪청의보≫를 비롯하여 무술변법 시기에서 당시까지의 주요 신문잡지에 대해서 일정한 평가를 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시무보≫는 중국의 신문잡지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발휘하였지만 그 논설내용과 체제는 매우 유치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 후 많은 신문잡지들이 출현했지만 대부분 ≪시무보≫를 모방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그 중 내용이 뛰어난 경우는 ≪국문휘편(國聞彙編)≫[16], ≪개지

(杜新艷)에 의하면, ≪청의보≫의 정간은 화재와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화재가 난 곳은 "청의보관(淸議報館)"이 아니라 ≪청의보≫의 사장〔總理〕였던 펑징루(馮鏡如)가 운영하던 문경상점(文經商店) 및 그 활판을 찍어 인쇄하는 곳〔活版所〕이었다. 펑징루는 이 화재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고 1902년 홍콩으로 돌아갔으며, 그 결과 ≪청의보≫도 일정정도 경제상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청의보관의 조판기구가 그대로 남아 있는 등 ≪청의보≫를 더 이상 발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 보다는 새로운 형식의 잡지를 기획하던 와중에 화재로 잡지의 경비를 맡았던 주주의 변화가 발생하여 결국 새로운 진영의 주주를 구성하고 ≪신민총보≫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16) ≪國聞彙編≫은 옌푸(嚴複) 등이 1897년 톈진(天津)에서 ≪국문보(國聞報)≫를 창간한 이후 동년 12월 8일부터 또 순간(旬刊)으로 발행한 잡지. 1898年2月15日까지 총 6권이 발간되었다.

록≫, ≪국민보(國民報)≫[17]와 같이 단명하거나 ≪역서휘편≫과 같이 신문잡지라기보다는 여러 책의 내용을 모아 소개하는 "총서(叢書)"에 가깝다고 평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청의보≫는 비록 민권을 제창하고 철학적 이치를 소개하였으며, 조정의 정치적 상황을 비판하는 등 시대의 여론을 이끌고 국민의 지식확충과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했지만, 다른 신문잡지와 비교해 볼 때 오십보백보로서 체제도 비체계적이고 사상적인 측면도 국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하였다.

19세기 중반, 특히 무술변법시기 이후 중국의 신문잡지의 역사에 대한 량치차오의 이러한 분석과 평가는 단순히 ≪청의보≫100호 발간에 대한 겸사(謙辭)라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신문잡지 이념에 근거한 평가로서 향후 새로운 신문잡지에 대한 구상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 문장에서 량치차오는 "국민을 새롭게〔新國民〕하려면 그 국가 고래의 잘못된 이상을 일소하여 그 머리〔腦質〕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신민(新民)"의 중요성을 주장하는가 하면, 또 동방민족의 사상은 유치하여 "전면적인 교육, 민족의 공덕에 대한 양성 없이는 문명"을 이룰 수 없으며, 러시아 학생의 소요에서 볼 수 있듯이 20세기에는 전제정치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국민도 이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정체에 대해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그는 향후 신문잡지의 발전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 "한 개인 또는 한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신문잡지이다. 특정 정당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일개 당의 신문잡지이며, 국민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한 국가의 신문잡지이다. 전세계 인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세계의 신문잡지이다. …… 이전의 ≪시무보≫, ≪지신보(知新報)≫[18]는

17) 친리산(秦力山), 션샹윈(沈翔雲) 등이 1901년 5월 일본 도쿄에서 발행한 월간지로서 동년 8월까지 전체 4기가 발간되었다.

18) 1897년 마카오에서 발간된 잡지로서 캉여우웨이(康有爲), 량치차오 등 유신파의 기관지였다. 캉광런(康廣仁)이 총편집을 맡아 처음에는 5일 간격으로 발행되다가 제20기부터는 순간(旬刊)으로, 그리고 1900년 2월부터는 반월간으로 발행되었다. 무술변법 실패 이후에도 계속 발행되었으며, 1899년 7월부터는 보황회의 기관지가 되었고, 1901년 1월 20일(光緖二十六年十二月初一日)총 133기로 정간되었다.

> 거의 한 개인의 신문잡지에서 벗어나 한 당의 신문잡지가 되었다. …… ≪청의보≫는 …… 당의 신문잡지와 국가의 신문잡지 중간단계에 위치해 있다. 이제 이 신문잡지가 일개 당의 신문잡지의 성격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한 국가의 신문잡지가 되고 나아가 더욱 노력하여 세계의 신문잡지로 발전하기를 바란다."[19]

이와 같이 량치차오는 기존의 ≪청의보≫는 국민의 신문잡지, 나아가 전세계인의 신문잡지가 되기 위한 초기단계에 처해 있으며, 향후 당의 기관지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벗어나 국민의 전체 이익을 목적으로 한 국가의 신문잡지, 즉 국민의 신문잡지로서 거듭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서 ≪청의보≫의 당 기관지로서의 성격을 탈피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언론활동상에 있어 보황회의 실질적 영수인 캉여우웨이(康有爲)와 량치차오 사이의 사상적 갈등이다. 일본에 망명한 이후 량치차오의 사상은 일본사상과 학술을 접하면서 크게 변화하였는데, 그 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바로 국가주의 사상이었다. 그리하여 ≪청의보≫에도 자연히 중국인의 국가의식과 근대적 국가의 수립을 주장하는 그의 문장들이 게재되었다. 그는 중국에서 국가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바로 민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민권이 흥성하면 국권이 확립되고, 민권이 소멸되면 국권도 망한다. …… 따라서 애국을 논하려면 반드시 민권을 흥성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민권에 대한 주장과 "보황"의 관계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국가를 보위하고 황제를 존중하는 정책이 어찌 민권을 흥하게 하는 것보다 시급 하겠는가"[20]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캉여우웨이는 량치차오의 민권, 자유 등을 주장하는 <음빙실자유서(飮冰室自由書)>[21]에 대해 "지금은

---

19) "以一人或一公司之利益爲目的者, 一人之報也; 以一黨之利益爲目的者, 一黨之報也; 以國民之利益爲目的者, 一國之報也; 以全世界人類之利益爲目的者, 世界之報也.…… ……若前之時務報、知新報者, 殆脫一人報之範圍, 而進入於一黨報之範圍也. …… 淸議報 …… 位置 …… 在黨報與國報之間. 今以何祝之? 曰 …… 進入於一國報之範圍, 且更努力漸進以達於世界報之範圍." 梁啓超, <本館第一百冊祝辭並論報館之責任及本館之經歷>, ≪淸議報≫, 第一百期, 1901.12.21.

20) 梁啓超, <愛國論三・民權論>, ≪淸議報≫, 第二十二冊, 1899年8月16日.

21) <飮冰室自由書>는 ≪淸議報≫ 제25~33책(1899.8~1899.12), 제37책(1900.3), 제39책(1900.3), 제93책(1901.10), 제96책(1901.11), 제98~100冊(1901.11-1901.12)과

www.kci.go.kr

단지 민지를 개발하는 것을 논해야지 민권의 부흥을 논해서는 안 된다"[22]고 비판하면서 어휘사용에 유의하라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량치차오는 스승 캉여우웨이와 동료들로부터 ≪청의보≫에 보황회에 관한 문장을 거의 게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23] 그러나 량치차오는 스승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일정한 선을 긋고, 오히려 캉여우웨이의 교육사상에서 가장 결여된 것은 "국가주의"이며, 또 중국에서 민권을 가장 먼저 제창한 사람은 캉여우웨이였지만 실제 정책을 논함에 있어서 그는 오히려 군권(君權)을 중시하였다고 지적하였다.[24] 따라서 당 기관지의 성격을 탈피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당파의 입장과 량치차오의 입장의 차이로 인한 사상활동의 제약에서 벗어나겠다는 개인적인 의지의 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902년 량치차오는 캉여유웨이와 사상적인 측면에서 더욱 상이한 행보를 보여주며 서로 다른 학파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25]

두 번째는 당 기관지로서의 ≪청의보≫는 정론지의 성격이 강하여 당면한 시국과 청 조정에 대한 비판이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의화단의 난을 겪으면서 량치차오는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지(福澤諭吉)와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등과 같이 국민의 문명화와 도덕적 소질을 중시하게 되었다.[26] 이는 중국의 문제를 모두 일부 군주나 위정자의 전제와 무능으로 여기던 관점에서 벗어나 민지와 민덕의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점진적인 국민교육과 국민성 개조의 방향으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목전의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과 대응에 급급해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보편적인 이론과 가치를 중심으

≪新民叢報≫ 제1호(1902.2), 제17호(1902.10), 제40-41호 합본(1903.11), 제42-43 합본(1903.12), 제59호(1904.12), 제67호(1905.4)에 연재 되었으며, 1905년 광지서국(廣智書局)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22) 梁啓超, <致南海夫子大人書>(光緒二十六年四月一日), 丁文江, 趙豊田編, ≪梁啓超年譜長編≫, 234~238쪽. 참고.

23) 梁啓超, <致雪兄書>(光緒二十六年四月一日), ≪梁啓超年譜長編≫, 238쪽. 참고. 여기서 "雪兄"은 캉여우웨이이 제자이자 량치차오의 동료 쉬멘(徐勉)을 가리킨다.

24) 梁啓超, <南海康先生傳>, ≪淸議報≫ 第一百期, 1901.12.21.

25) 丁文江, 趙豊田編, ≪梁啓超年譜長編≫, 279쪽.

26) 이들 일본사상가의 량치차오에 대한 영향에 관해서는 鄭匡民, ≪梁啓超啓蒙思想的東學背景≫, 上海書店出版社, 2003. 참고.

로 새로운 문명과 국가의식을 갖춘 국민을 양성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게 된 것이다.

국민의 잡지로서의 ≪신민총보≫는 이러한 의미에서 한 시기 혹은 한 시대의 문명건설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하자마 나오키(狹間直樹)는 량치차오가 그 잡지를 발간하게 된 까닭은 <신민설>을 발표하기 위해서였으며, 현실의 청조 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서 도덕'과 '정치학 이론'을 갖춘 국민을 양성하여 중국을 구미나 일본과 같은 근대민족국가로 개조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27]

3. 근대적 교양잡지: 학술, 정보와 취미의 양성

이상과 같이 ≪청의보≫의 정간과 ≪신민총보≫의 발간 사이에는 량치차오의 사상과 활동상의 전환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신민총보≫는 일종의 당의 기관지에서 국민의 잡지를 지향하는, ≪청의보≫에 대한 개조판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그 종지는 잡지명에서 말하듯 "신민(新民)", 즉 중국인을 새롭게 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중국을 유신하는 것이 당면과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중국의 국민을 유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량치차오는 중국이 부진한 것은 중국 국민의 공덕이 결여되어 있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이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동서의 도덕을 종합하여 덕육의 방침으로 삼고 정치학 이론을 바탕으로 지육에 힘써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민총보≫의 주요활동은 정론이 아니라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국가주의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국가사상을 배양하는 것이었다. 이

www.kci.go.kr

27) 狹間直樹, <新民說略論>, 狹間直樹編, ≪梁啓超・明治日本・西方≫,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1, 69~70쪽.

러한 종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 당파의 입장을 설파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서는 안 되며, 공평한 입장에 근거해서 논평하고 무엇보다도 국민 전체의 공리와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했다. 또 "신민"은 단시일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진적인 변혁을 통해 조급하게 실현하려해서도 안 된다고 보았다.[28]

이를 위해 ≪신민총보≫는 단순히 잡지의 종지와 방향에 대해서만 새로운 이념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잡지의 편집방침에 있어서도 새로운 사고와 실험을 시도하였다. 우선 체제면에 있어서 일본

잡지 란	구체적 내용
도화(圖畵)	세계 각 지도와 풍경화, 인물화(사진)
논설(論說)	정치와 학문의 근본적인 문제나 절실한 시대문제에 대한 논설이나 평론
학설(學說)	서구 저명한 학자의 학설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소개
시국(時局)	세계 대세를 논하여 중국의 귀감으로 삼음
정치(政治)	전적으로 국민의 국가사상을 배양하여 문명세계의 입국의 근본을 인식하게 함
역사・전기(史傳)	중서, 고금의 역사 혹은 인물 전기를 소개
지리(地理)	전체 지리 혹은 부분적인 지리 소개
교육(教育)	본 잡지의 주요 목적으로서, 중국 국민교육에 부합하는 교육 원리나 방법을 논함
종교(宗教)	종교는 덕육의 근본이며, 본 잡지는 신앙과 사상의 자유를 전제로 각 종교의 의미를 밝혀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함
학술(學術)	철학이나 기예, 혹은 중국 학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을 선택하여 논함
농공상(農工商)	이는 부국의 근본으로 서구의 발달상황과 그 이유를 서술하여 비교 참조하게 함
병사(兵事)	무비(武備)는 국민의 정신으로 특별히 중시함
재정(財政)	경제학은 전문 학술분야로서 국가건설에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그 이치를 체계적으로 설명함
법률(法律)	법률사상은 중국인에게 있어 부족한 바이므로 법가의 여러 주장을 소개함

www.kci.go.kr

28) <本報公告>, ≪新民叢報≫ 第一號, 光緒二十八年 正月初一日.

국문단평 (國聞短評)	중국과 외국의 최근 중요한 소식을 비평함
명가담총 (名家談叢)	단문이지만 정곡을 찌르는 문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함
여론일반 (輿論一斑)	여러 신문잡지의 논설 중 좋은 것을 뽑아 평론함
잡조(雜俎)	일명 신지식의 잡화점임
문답(問答)	독자의 질문에 대한 본사 동인 혹은 다른 독자들이 답변함
소설(小說)	시세에 부합하거나 인정세태를 묘사한 소설류
문원(文苑)	시나 고문(古文) 등을 게재, 이를 통해 중국문학사상의 변천을 엿볼 수 있음
신서소개 (紹介新著)	각지에서 출판한 저서나 역서에 대한 서평과 소개
중국근사 (中國近事)	간단하고 정확성을 중시함
해외휘보 (海外彙報)	세계 각지의 소식
기타〔餘錄〕	이상 체제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내용

〔표 2〕 ≪신민총보≫ 발간 시 계획된 주요 란

의 ≪태양≫ 잡지 등을 참고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망라하고자 하였다.[29] 이상 체제에서 볼 수 있듯이 ≪신민총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근대의 주요 학문체계를 망라하여 다양한 지식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각종 시사와 학술동향, 그리고 취미분야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광범

29) ≪신민총보≫의 체제변화는 크게 네시기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제1~24호(1902.2~1903.1)의 시기로써 창간호에서 밝힌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두 번째 시기는 제25~48호(1903.2~1904.6)시기로써 전체 체제가 논저문(論著門: 논설, 역사, 시국, 학설, 전기, 정치, 승급, 교육, 지리, 학술 등 15개 란), 비평문(批評門: 政界시평, 교육시평, 학계시평, 풍속시평, 실업시평, 인물시평, 평론의 평론), 총록문(叢錄門: 담총, 소설, 문원, 잡조)로 구분하여 비평이 강화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제49~72호(1904.6~1906.1)시기로, 제24호 이전의 체제로 회귀하였으나 제69호(1905.5)~70호(1905.12)는 발행시기의 연장 혹은 지체현상이 심하였다. 마지막 네 번째 시기는 제73~96호(1906.1~1907.11)시기로써 분류 란이 대폭 축소되어 91호는 단지 4개 란만으로 구성되기도 했으며, 논저와 역술이 2/3이상을 점하였다. 또 제79호부터는 ≪민보≫와의 논쟁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94호와 95호의 발행 시기는 근 1년간의 공백이 있었다.

한 내용을 담고자 한 것은 중국인에게 있어 가장 부족한 것이 일반상식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따라서 ≪신민총보≫ 동인은 만약 다른 서적을 한 권도 보지 않더라도 그 잡지만 1년간 구독하면 정치학술의 대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서구학술에 대한 직역(일본문장으로부터의 중역(重譯))이 아니라 중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논리와 문체, 설명방식을 고려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신지식을 소개하던, 특히 일본 내의 중국 유학생들이 발행하던 잡지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폐단을 지적한 것인데, ≪역서휘편≫을 비롯한 재일본 중국 유학생들이 발간하던 잡지들에서 소개하던 많은 내용들은 당시 중국독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어휘와 논리, 내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생소한 것이었다. 따라서 ≪신민총보≫ 동인은 서구서적 가운데 내용의 고하를 막론하고 중국인이 능히 이해하고 감동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서구의 학술을 소개함에 있어서 중국인의 이해에 적합하도록 풀어서 설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30]

그러나 국민잡지에 부합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신민총보≫의 주요 기고자의 범위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창간 이후 1년 동안 주요문장의 필자를 보면 거의 량치차오의 개인적인 문장으로 충당되고 있다. 창간호를 보면 논설(<신민설>)을 비롯하여, 학설, 역사·전기, 지리, 교육, 학술란의 중요 문장의 필자는 모두 량치차오의 필명인 "中國之新民"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필진의 한 사람에 대한 의존이 지닌 문제는 당시 ≪신민총보≫ 동인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제1년의 마지막 호인 제24호에 <신민총보 제25호 이후 개량안내>라는 광고가 게재되었는데, 그 주요 개량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수의 필진을 초빙하는 것이었다. 즉 "금년 본 잡지의 문장 대부분이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 그 의론과 사상이 간단한 면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학문과 문장에 뛰어난 국내의 석학을 여러 명 초빙, 각 전문분야의 의론을 맡도록"[31]하여 사상의론을 더욱 풍부하게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

www.kci.go.kr

30) <本報之特色>, ≪新民叢報≫ 第一號, 光緒二十八年 正月初一日.
31) <新民叢報第二十五號以後改良告白>, ≪新民叢報≫ 第24號, 光緒二十八年十二月十五日.

25호의 발간일은 1903년 2월인데, 바로 이 해 정월에 량치차오는 미국 보황회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였다가 10월이 되어서 일본으로 돌아왔다. 그 사이에 총편집인으로서 그의 문장은 계속 게재되었지만, 실질적인 편집은 쟝즈여우(蔣智由, 1865~1929, 자는 觀雲)가 맡았으며 잡지의 체제도 적잖은 변동이 있었고 문장 필진도 다소 확대되어 다양화 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96호에 문장을 기고한 사람은 대략 85명이고 시사뉴스와 문예를 제외한 문장 편수는 대략 455편 정도인데, 이 중 21명 정도의 주 기고자의 문장이 416편이었다. 또 지식배경의 측면에서 보면 기고자 가운데 40명 정도가 일본 유학생 출신이었고, 전통지식에 기반한 개혁적 지식인이 20명 정도로써 유학생 출신들의 역할이 두드러졌다.[32] 그러나 발표문장으로 보면 유학생보다는 전통지식에 기반한 개혁적 지식인의 역할이 두드러졌는데, 량치차오의 문장을 제외하더라도 161편 정도의 문장이 모두 이들 그룹에서 나왔다. 이러한 다양한 필진은 ≪신민총보≫의 국민잡지로서의 성격을 뒷받침하는 주요 역량이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특정인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었다.[33] 다만 필진 가운데 캉여우웨이를 비롯하여 보황회 회원들이 14명 정도 참여하고 있었지만, 탈'보황회'를 주창한 량치차오를 제외하면 이들의 문장은 90편 정도로 ≪신민총보≫의 성격을 좌우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34] 뿐만 아니라 보황회 회원들 사이의 정치적 입장도 다양하여, 한원쥐(韓文擧), 마쥔우(馬君武)등은 량치차오와 같이 보황회의 입장보다도 더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정치적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필진의 구성에

32) 주요 기고자는 량치차오, 캉여우웨이, 쟝즈여우, 마이멍화(麥孟華), 한원쥐(韓文擧), 마쥔우(馬君武), 뤄푸(羅普), 우중야오(吳仲遙), 황준셴(黃遵憲), 옌푸(嚴復), 쟝타이옌(章太炎), 샤청여우(夏增佑), 첸지붜(錢基博), 위여우런(于右任), 우위(吳虞), 쉬붜수(徐佛蘇), 천취빙(陳去病), 가오쉬(高旭) 등이었으며, 인맥으로 보면 캉여우웨이의 제자, 량치차오의 제자 및 친우를 주축으로 하면서 다수의 유학생 및 국내 개혁파 지식인, 혁명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33) 전체 455편 중 량치차오의 문장은 208편이었고 쟝즈여우의 문장은 74편으로, 이 두 사람의 문장이 전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34) 이상 통계적 수치는 劉珊珊의 <新民・新知・新文化: 新民叢報研究>(南開大學博士學位論文, 2010)를 근거로 하고 있다.

www.kci.go.kr

있어서는 종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보의 입장에서 벗어나는데 기본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35]

잡지의 내용적인 구성의 측면에서 보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의 교양을 위해 다양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6] 우선 논설란에서는 <신민설>을 중심으로 연재되었고 학술과 학설란에서는 전체 40편 가운데 31편이 서구의 사상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구체적 내용으로 보면 40편 중 17편이 정치학과 철학에 관한 것이고, 일반 학술사상이 10편이었다.[37] 또 정치란 문장을 보면 전체 21편으로 그 중 캉여우웨이와 량치차오의 문장이 각각 11편과 6편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었으며, 역사·전기는 25편,[38] 법학사상은 20편 정도였다. 이상 내용들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하나는 정치사상이 중심이라는 점이고,[39] 다른 하나는 많은 내용이 간단한 약술이거나 역사적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학술이론과 관련해서는 베이컨, 데카르트, 몽테스키외, 벤담,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칸트, 헤겔, 블룬칠리, 밀, 벤자민 키드등의 이론이 소개되었고, 역사적 고찰로는 경제학〔生計學〕사, 과

35) ≪신민총보≫가 창간된 1902년을 전후하여 캉여우웨이의 제자들 가운데 민주를 제창하고, 만주족을 반대하며, 공교(孔教)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쉬친(徐勤), 어우쥐쟈(歐榘甲) 등이었다. 특히 어우쥐쟈(歐榘甲) 가 쓴 ≪신광동(新廣東)≫은 당시 반향이 컸으며, ≪신민총보≫에서도 적극 광고하였다. 이에 캉여우웨이는 반만(反滿) 혁명론과 각 성 독립론을 반대하는 두 편의 논문을 엮어 <남해선생최근 정견서(南海先生最近政見書)>를 발간했다. 이에 대해서는 丁文江, 趙豊田編, ≪梁啓超年譜長編≫, 286~289쪽. 참고.

36) 여기서 체계적이라 함은 한 편의 문장의 논리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식분야를 각각 역사적으로 서술함으로써 당시 학술의 기원과 전개양상을 비교적 이해하기 쉽도록 소개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37) 일반 학술과 정치(철학)이외에 경제학 2편, 문학 3편, 생물학 3편, 과학과 천문학이 각각 1편이었다. 필진을 보면 전체 40편 중 량치차오의 문장이 20편, 장쯔여우의 문장이 7편, 마쥔우의 문장이 5편으로 이 3인의 문장이 대부분을 점하였다.

38) 대표적인 전기(傳記)는 <匈加利愛國著噶蘇士傳>, <意大利建國三傑傳>, <羅蘭夫人傳>, <新英國巨人克林威爾傳>, <鐵血宰相俾斯麥傳>, <大哲斯賓塞略傳>, <趙武靈王傳>, <袁崇煥傳>, <鄭和傳> 등이 있다.

39) 정치사상은 <政治學學理摭言>, <國家思想變遷異同論>, <政治學大家伯倫知理之學說>, <論立法權>, <論政府與人民之權限>, <公民自治篇>, <官制議>, <穆勒約翰議院政治論>, <日本預備立憲時代之人民>, <英國政黨最近之政況>, <近世憲法上之權力分立主義>, <政府之責任>, <論地方自治之定義> 등 외에도 전반적으로 나타난다.

학사, 서양교육학사, 화학사, 영국 상공업 발달사, 프랑스혁명사, 구미 각국 입헌사와 중국 전제정치 진화사, 중국 역사상의 혁명, 중국법리학 발전사, 중국 성문법 연혁, 중국학술사상변천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더불어 또 주목할 것은 심리와 관련된 논문들인데, 교육, 도덕, 종교, 심미 등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소개되었다.[40] 이외에도 쥘 베른의 <15소년 표류기(十五小豪傑)>, 프랑스 F. du boisgobey의 탐정소설 <미인수(美人手)>, 량치차오의 <신로마전기(新羅馬傳奇)> 등 소설 13편, 시가 대략 500수, 도화(사진) 285폭이 게재되었으며, <음빙실자유서>, <음빙실시화(飮冰室詩話)>를 비롯해 신지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소개되었다. 이러한 구성을 볼 때, ≪신민총보≫는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국민의 지식을 함양하고 역사와 전기를 통한 국민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중국내외의 뉴스에 대한 소개와 비평 등 전체적으로 국민의 의식계몽과 사상 감정의 변화를 위한 국민 교양잡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 이론에서 실제연구로: "신민"의 종결

≪신민총보≫는 내용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종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취지와 의의는 "신민"에 있었다. 이를 위해 ≪신민총보≫에서는 잡지의 대표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논설란에 제1호부터 <신민설>을 게재하였다. <신민설>은 전체 20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6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그 중에서 제1절에서 제4절까지 "신민"의 개념과 그 의의를 설명한 것을 제외하면, 신민

40) 대표적인 문장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國民心理學與教育之關系>, <法蘭西文學說例>, <論法律與道德之關系>, <心理學綱要>, <共同感情之必要論>, <音樂教育論>, <維朗氏詩學論>, <養心用心論>, <論責任心與名譽心之利害>, <心理學剖解圖說>, <冷的文章熱的文章>, <中國詩樂之遷變與戲曲發展之關系>, <論佛教與群治之關系>, <精神修養論> 등.

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자질로 제시된 것은 "공덕", "국가사상", "진취모험", "권리사상", "자유", "자치", "진보", "자존", "합군(合群)", "생산과 분배〔生利分利〕", "굳센 의지〔毅力〕", "의무사상", "상무(尙武)", "사덕(私德)", "정치능력", "민기(民氣)" 등 전체 16개 항목이다.[41] 이는 량치차오가 ≪청의보≫시기부터 강조하던 내용을 보다 체계화시킨 것이었다.

호수	논설란 논문제목	발행 시기	호수	논설란 논문제목	발행 시기
1	敍論 論新民爲今日中國第一急務 釋新民之義	1902/2.8	52	外資輸入問題	1904/9.10
2	就優勝劣敗以證新民之結果而論及取法之所宜	2.22	53	外資輸入問題	9.24
3	論公德	3.10	54	外資輸入問題	10.9
4	論國家思想	3.24	55	無	10.23
5	論進取冒險	4.8	56	外資輸入問題	11.7
6	論權利思想	4.22	57	共同感情之必要論 (觀雲)	11.21
7	論自由	5.8	58	共同感情之必要論	12.7
8	論自由	5.22	59	餘之死生觀 共同感情之必要論	12.21
9	論自治	6.6	60	餘之死生觀 共同感情之必要論	1905/1.6

41) <신민설>은 ≪신민총보≫ 1~12호, 14호, 16호, 19~20호, 24호, 26호, 28~29호, 38·39호~40·41호, 46·47·48호, 49호, 62호, 72호에 게재되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29호까지는 순조롭게 연재되었지만, "사덕"이 발표된 하나의 통합적인 문장으로 정리된 것은 1932년 량치차오가 음빙실문집 16책과 음빙실전집 24책을 합하여 편한 ≪음빙실합집(飮氷室合集)≫에서이다. 량치차오는 신민설을 하나의 목차로 묶으면서 기본적으로 발표된 순서로 편집했지만, 마지막으로 발표한 두 편의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 나중에 발표한 "민기를 논함(論民氣)"을 "정치능력을 논함(論政治能力)" 앞에 배치하였다.

10	**論進步**	6.20	61	錢論(觀雲)	1.20
11	**論進步**	7.5	62	**論政治能力**	2.4
12	**論自尊**	7.19	63	無	2.18
13	論學生公憤事	8.4	64	國家與道德論 (觀雲)	3.6
14	**論自尊**	8.18	65	國家與道德論	3.20
15	敬告留學生諸君	9.2	66	無	4.5
16	**論合群**	9.16	67	無	4.19
17	敬告我同業諸君	10.2	68	無	5.4
18	敬告當道者	10.16	69	無	5.18
19	**論生利分利**	10.31	70	無	12.11
20	**論生利分利**	11.14	71	記東京學界公憤事並述餘之意見	12.26
21	新民議(一)	11.30	72	**論民氣** 論主張競爭者當知法制(佛蘇/徐佛蘇)	1906/1.9
22	釋革	12.14	73	無	1.25
23	新民議(二)(群治改良論)(미완)	12.30	74	無	2.8
24	**論毅力**	1903/1.13	75	無	2.23
25	敬告我國民(癸卯元旦所感)	2.15	76	無	3.9
26	**論義務思想(미완)**	2.26	77	無	3.25
27	論中國國民之品格	3.12	78	無	4.8
28	**論尙武**	3.27	79	無	4.24
29	**論尙武**	4.11	80	無	5.8
30	論獨立(無/양계초)	4.26	81	無	6.22
31	說希望(無/양계초)	5.10	82	無	7.6
32	服從釋義(無/양계초)	5.25	83	無	7.21
33	服從釋義	6.9	84	無	8.4

www.kci.go.kr

34	中國社會之原(別士/夏曾佑)	6.24	85	無	8.20
35	中國社會之原	8.6	86	無	9.3
36	中國社會之原	8.22	87	無	9.18
37	論功名心(彗廣)	9.5	88	無	10.2
38·39	**論私德**	10.4	89	無	10.18
40·41	**論私德**	11.2	90	無	11.1
42·43	厭世主義(觀雲/蔣智由)	12.2	91	無	11.16
44·45	日俄戰爭之將來(主父)	1904/1.1	92	無	11.30
46~48	**論私德** 中國社會之原 日俄戰爭之感(觀雲)	2.14	93	無	12.16
49	**論政治能力**	6.28	94	無	12.30
50	無	7.13	95	無	1907/11.6
51	中國近日之多數說及其處置之法(觀雲)*	8.25	96	無	11.20

〔표 3〕≪신민총보≫발행날짜와 "논설"란의 논문제목. 강조체는 <신민설>이며, 저자 표기가 없는 것은 모두 양계초로서 필명은 "中國之新民"임. *는 49호 "시국"란에 게재되었다가 51호에서는 "논설"란에 연재된 것임.

이상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신민설>은 량치차오가 1903년 2월 미주 보황회의 초청으로 북미방문을 위해 떠난 직후까지 순조롭게 발표되다가 "사덕"은 귀국 후에 발표되었으며, 그것도 4개월에 걸쳐 3회 연재되었다. 그리고 잡지의 발간이 지체되면서 "정치능력"은 다시 4개월이 지난 후 2회에 걸쳐 발표되었지만, 처음 발표되고 나서 두 번째는 7개월이 지난 후 발표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민기"는 "정치능력"의 연재가 끝난 후 거의 11개월이 지나 발표되었으며 그 후로는 바로 논설란 자체가 소실되어 버렸다. 이와 같이 1904년 이후 잡지발간은 불규칙적이고 종종 지체되면서 연재물이 중단되거나 일부 입

www.kci.go.kr

장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신민총보≫는 이러한 시간적인 변화를 염두에 두는 독법이 필요하다. 한편 위 표에서 주목할 것은 ≪신민총보≫에는 직접적으로 <신민설>의 일부내용으로 명명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과 상관된 량치차오의 문장들이 적잖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신민의(新民議)>, <중국국민의 품격을 논함(論中國國民之品格)>, <독립론(論獨立)>, <희망론(論希望)>, <복종석의(服從釋義)>등이 그 예인데, 이중에서 후자 세편의 논문은 당시 ≪신민총보≫에 필명 없이 발표되었지만 후에 ≪음빙실합집(飮氷室合集≫에 실렸다.

량치차오가 <신민설>을 제기한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민족주의의 경쟁으로 제국주의가 팽창하는 시대에 중국의 국민국가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다. 따라서 량치차오는 ≪청의보≫ 시기부터 국가론을 적극 소개하며 국가건설을 위해 민권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는 국가란 "개개의 민이 모여서"이룬 "유기체적인 조직"이라고 보고, 국가의 역량도 바로 민의 개개의 역량의 총합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바로 국민들의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중국이 열강에 패하면서 날로 쇠약해 진 이유도 바로 국민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가의식이 없고, 노예적이고, 우매하며 이기적이고, 허위의식과 나약함, 정적인 국민성 때문이라고 보았다.[42] 따라서 그는 국민성의 개조를 제기하며 민권과 자유, 파괴주의 등을 제창하였다.[43] 특히 그는 중국인의 국가의식이 부재하고 허약한 국민성을 지니게 된 것은 바로 권리의식의 부재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렇지만 권리는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타자에 대한 강권을 통해 갖게 되는 것으로,[44] 중국인이 권리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것은 바로 천하를 1인의 소유로 간주하는 전제왕조에 의한 억

42) 梁啓超, <中國積弱溯源論>, ≪淸議報≫ 第77~84冊, 1901.4.29~1901.7.6. 한편 2년 후에 발표한 <論中國國民之品格>에서는 중국인의 품격에서 결여된 것으로, 애국심, 독립심, 공공의식, 자치능력을 지적하였다. ≪新民叢報≫ 第27號, 1903.3.12

43) 任公, <飮冰室自由書>, ≪淸議報≫ 第30冊, 1899.10.15. 구체적인 소제목은 "放棄自由之罪", "國權與民權", "破壞主義", "自信力"이다.

44) 任公, <飮冰室自由書・論强權>, ≪淸議報≫ 第31冊, 1899.10.25.

압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바로 중국의 전제적인 정치체제를 개혁함으로써 중국인을 억압해 온 낙후된 정술(政術)을 바꾸어야 한다고 보았다.

<신민설>은 바로 이러한 주장을 보다 체계화하고 심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청의보≫시기와 크게 다른 점이 있는데, 이는 바로 문제의 해결을 국민성의 타락을 초래한 청조에 대한 비판과 정치개혁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 자기 계몽과 혁신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본 것이었다.

> 남을 탓하면서 자신은 탓하지 않고, 타인에게 바라면서 스스로에게는 바라지 않는 이 악습이 바로 중국이 날로 새로워지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 신민이란 새로워지는 사람만이 대상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자도 또 대상일진데, 결국 우리 백성이 각자 스스로 새로워지는 것일 뿐이다. 맹자가 말하길, '그대가 힘써 행하게 되면, 그로써 또 그대의 나라도 새로워진다'고 했는데, 이는 스스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바로 신민을 일컫는 말이다.45)

그러나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낡은 것을 버리고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서구 조류에 심취하여 수 천년의 중국 도덕, 학술, 풍속을 저버리는 것도 아니고 또 옛 것을 묵수하는 것만도 아니라, 중국 본래의 것을 굳건히 담금질하여 새롭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 없는 것을 보충하여 새롭게 하는 것46)라고 말하고 있다. 즉 '중서도덕'과 '정치학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인이 지식과 더불어 덕성을 양성하여 근대적인 국민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강조하였다.

량치차오의 <신민설>에 대한 구상은 중국 국민이 부패하고 타락한 근원을 탐구하여, 타국이 발달하고 진보한 까닭과 비교하여 국민들에게 문제의 근원을 인식케 함으로써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게하기 위함이었

45) "此責人不責己, 望人不望己之惡習, 卽中國所以不能維新之大原. …… 新民云者, 非新者一人, 而新之者又一人也, 則在吾民之各自新而已. 孟子曰: '力行之, 亦以新子之國' 自新之謂也. 新民之謂也." 中國之新民, <新民說・論新民爲今日中國第一急務>, ≪新民叢報≫ 第1號, 1902.2.8.

46) 中國之新民, <新民說・釋新民之義>, ≪新民叢報≫第1號, 1902.2.8.

다.[47] 그리고 이를 위해 접근방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하나는 순이론적 측면〔이론의 이론〕에서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방면에서 실제 사실을 폭넓게 관찰〔실제의 이론〕하여 중국의 문제점의 소재를 밝히고, 서구에서 시행하는 여러 방법과 중국의 역사 및 현실에 근거하여 시행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량치차오가 자신의 <신민설>은 상대적으로 순이론적 성격이 강한 이론의 이론에 속한다고 보았다. 즉 <신민설>은 중국인에게 공덕이나 국가사상,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정신, 자유, 자치, 상무의식, 강한 의지력 등이 결여되어있는데, 이것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이를 배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론은 궁극적으로 실제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실제의 이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그는 별도로 <신민의(新民議)>를 구상하여, 제1편 가족의 개혁, 제2편 지방단체의 개혁, 제3편 국가의 개혁, 제4편 사회풍속의 개혁, 제5편 학문의 개혁, 제6편 도덕·종교의 개혁과 같이 일종의 사회개량론을 편찬하고자 하였다.[48] 그리고 그 일환으로서 첫 번째로 발표한 것이 바로 가족의 개혁에 관한 <조혼을 금할 것을 논함(禁早婚議)>이었다.[49] 이와 같이 량치차오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다르게 <신민의>를 별도로 계획하여 이론에서 실제에 이르는 개혁담론인 광의의 <신민설>을 구상하고 있었다.

<신민설>과 ≪신민총보≫를 이해함에 있어 <신민의>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1903년 방미 이후 량치차오는 이전과 달리 혁명과 급진적인 "파괴주의"를 비판하여 논쟁을 불러일으켰다.[50] 이러한 변화는 세계에서 가장

47) 中國之新民, <新民議>, ≪新民叢報≫ 第21號, 1902. 11. 30.
48) 中國之新民, <新民議>, ≪新民叢報≫ 第21號, 1902. 11. 30.
49) 中國之新民, <新民議·禁早婚議>, ≪新民叢報≫ 第23號, 1902. 12. 30.
50) 량치차오의 정치 입장 변화와 그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는 中國之新民, <政治學大家伯倫知理之學說>, ≪新民叢報≫ 第38·39號, 1903.10.4; <飮冰室自由書·答飛生>, ≪新民叢報≫ 第40·41號(통합호), 1903.11.2; <飮冰室自由書·答和事人>, ≪新民叢報≫ 第42·43號(통합호), 1903.12.2 참고.

공리(公理)에 합당하고 자유로운 국가로 인식했던 미국의 실제 상황에 대한 재인식도 한 계기가 되었지만, 그 보다는 이론과 실제에서 실제에 보다 더 주안점을 두기 시작한 량치차오의 관점에 따른 것이었다. 그 결과 윤리와 관련해서도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각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천적인 행동을 강조하였으며, 양지(良知)와 지행합일을 강조하는 양명학에 더더욱 주목하게 되었다. 량치차오가 양명학을 중시한 것은 미국방문 이전부터이기는 하지만 이를 중심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전개한 것은 미국에서 일본으로 귀국한 이후 발표한 "사덕"에서부터였다.[51]

그러나 근본을 바르게 하고(正本), 홀로 있을 때 신중하며(愼獨), 작은 일에도 삼가는(謹小) "사덕"을 강조했다고 해서 량치차오의 사상이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 "사덕"은 모든 덕성의 근본이고, 공덕과 사덕은 분리될 수 없음은 이미 "공덕"에서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통의 윤리담론을 더욱 갈고 다듬는 것이 신민의 한 방법임을 천명했던 바를 고려하면 신민을 위한 전통윤리의 강조는 결코 사상적 전환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52] 그럼에도 <사덕>에서는 앞의 <신민설>과 비교하여 량치차오의 관점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즉 그는 <사덕>에서 중국인의 "사덕"이 타락한 원인은 여전히 전제정치와 역대 군주의 정술, 전쟁과 민생의 초췌함 등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근대적인 신민의 "사덕"을 위해서는 서구의 윤리적 관점으로 보충해야 하지만, 이 과정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비교적 효과가 빠른 중국의 전통적인 윤리사상을 바탕으로 사덕을 연마해야 한다고 보았다.[53] 특히 그는 지(智)와 덕(德)의 차이점에 주목하고, 서구사상의 세례 속에서 중국의 지식인들은 덕육을 지덕의 범위에서 논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중국에서는 지와 덕의 진보가 반비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54] 이는 상대적으로 지육(智育)을 강조하던 이전의 관점과 비

51) 黃克武, <梁啓超與儒家傳統:以淸末王學爲中心之考察>, 李喜所主編, ≪梁啓超與中國近代社會文化≫, 天津古籍出版社, 2005, 141~153쪽.

52) 황커우는 방미이후 량치차오의 사상적 경향을 변환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량치차오의 적응사상의 특징이 발휘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黃克武, ≪一個被放棄的選擇: 梁啓超調適思想之硏究≫, 臺灣中硏院近代史硏究所, 1994, 36~37쪽.

53) 中國之新民, <新民說・私德>, ≪新民叢報≫ 第40・41號(통합호), 1903.11.2

교했을 때 덕육에 대한 강조로 변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덕육의 기초로서 경제적 조건을 강조하여 국민성의 열등함은 바로 민생의 초췌함에 기인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덕성의 문제는 이제 지식을 통한 계몽과 각성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조건의 향상과 정치·사회적 조건의 개혁의 문제로 변화하였다. 즉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의 문제가 공덕·사덕을 포함한 덕성의 근본문제가 된 것이다.[55]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사덕>을 이어 발표된 <정치능력을 논함>이라는 문장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중국인이 정치능력이 결여된 이유와 그 양성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는 이 문장은 ≪신민총보≫의 제2년 마지막 호에서 광고를 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4개월을 격하고 나서 발간된 제3년1호에 게재되었다. 광고에 따르면 이 문장은 량치차오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저술하였으며, 1902-1903년에 발표된 이전의 모든 <신민설>의 여러 문장들에 비해 그 논의는 더욱더 실제적이라고 예고하고 있다.[56] 이는 앞서 <신민의>에서 이론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의 이론을 중시했던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량치차오의 변화의 경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신민"의 문제를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능력과 실천의 문제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다. 량치차오는 중국을 근심하는 사람들은 중국인에게 정치사상이 없음을 탄식하지만, 이후 중국은 정치사상이 결여된 것이 걱정이 아니라 정치능력이 없는 것이 걱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57] 왜냐하면 결여된 정치사상을 보급하기는 쉽지만 결여된 능력을 구비하게 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능력을 갖추어야 할 대상은 국민이지만, 그것을 배양하는 주체는 국민이 아니라 이미 사상을 갖춘 중등사회라고 보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이 무능력한 것은 바로 사상을 갖춘 중등사회가 무능력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

54) 中國之新民, <新民說・私德>, ≪新民叢報≫ 第46・47・48號(통합호), 1904.2.14
55) 민덕과 국민경제의 관계에 대한 량치차오의 관점에 대해서는 李長莉, <梁啓超論新民德与國民生計>, ≪近代史研究≫, 2004年03期, 21~60쪽 참고.
56) <本報第三年第一期本社總撰述所著論要目豫告>, ≪新民叢報≫第46・47・48號(통합호), 1904.2.14
57) 中國之新民, <新民說・論政治能力>, ≪新民叢報≫ 第49號, 1904.6.28.

다. 이는 신민의 의미가 국민 스스로가 객체이자 주체가 되어 스스로 새로워지는 것이라는 처음의 관점에 대한 수정이자 중국인 전체의 정치적 무능력에 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능력은 민지(民智), 민덕(民德), 민력(民力)을 강조한 <신민설>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지만, 그것을 상대적으로 전면화시킨 것은 <신민설> 후반의 특징이다.[58] 이러한 능력에 대한 강조는 <신민설>의 표제 하에 발표된 마지막 문장인 <민기(民氣)>에서도 보여지는데, 량치차오는 민력과 민덕, 민지에 기반 하지 않은 민기는 위험하며 당시 중국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민기를 분기시킬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59]

중국인의 전반적인 능력의 결여와 그것을 예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는 인식은 결국 량치차오의 정치적인 구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중국에서의 공화혁명을 부정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입헌을 위한 각종 제도장치와 국민의 저급한 수준 때문에 바로 입헌군주제도 시행하기 어려우며, 입헌을 예비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개명한 전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른바 <개명전제론(開明專制論)>이 그것인데, 이 문장은 바로 "민기론"이 발표되고 나서 바로 다음 호인 제4년제1호, 즉 73호부터 연재되었다.[60] 량치차오가 말하는 개명전제란 전제군주 1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야만적인 전제와는 달리 국민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제로서, 국민들의 정치적 능력을 배양시

58) 주의할 것은 ≪신민총보≫ 제1호의 신민설에서는 민덕, 민지, 민력과 같이 민력을 맨 마지막에 언급하였지만, "민기론"편에서는 민력, 민지, 민덕과 같이 민력을 맨 앞에 두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순서가 의도적인가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반복적이고 전체 논지의 변화와 상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신민총보≫ 종지에서는 공덕과 지혜의 문제를 중심으로 덕육과 지육을 강조하였지만, ≪신민총보≫의 제3년부터는 언론의 시대에서 실행의 시대로 전환함에 따라 실제적인 것을 더 중시하겠다고 표명하고 있다. 이는 곧 실제적인 실행능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新民叢報≫ 第46·47·48號(통합호)(1904. 2. 14) "第三年之新民叢報" 광고 참고.

59) 中國之新民, <新民說·論民氣>, ≪新民叢報≫ 第72號, 1906. 1. 9.

60) 飮冰, <開明專制論>, ≪新民叢報≫ 第73~75號(1906.1.25~1906.3.9.), 제77호(1906. 3.25.) 량치차오의 정치사상의 변화는 사상내적인 요인이외에도 1905년 이후 중국 청조의 입헌준비를 위한 여러 예비조치들의 영향이 컸다. 량치차오 사상변화를 전후하여 그와 청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狹間直樹, <新民說略論>, 狹間直樹編, ≪梁啓超·明治日本·西方≫,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1. 참고.

키는 수단적인 의미이다.[61] 이로써 계몽의 주체는 국민자신에서 중등사회로, 그리고 다시 개명전제군주로 바뀌었으며, <신민설>의 기본전제도 부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바로 ≪신민총보≫의 구성상에도 반영되었다. 즉 제73호부터 <신민설>에 대한 연재도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中國之新民"이라는 필명도 사용되지 않았다. 대신 논설란에는 <신민설>의 기본 기조와는 크게 다른 <개명전제론>이 연재되고, 필명도 그의 시화나 소설과 같이 문학적인 문장을 발표할 때 주로 사용하던 "음빙(飮冰)"을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체 체제도 도화(圖畵), 논저(論著), 역술(譯述), 기재(記載), 문예(文藝), 잡찬(雜纂)으로 구성되고, 그 중에서도 논저와 역술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이전에 비해 잡지로서의 면모가 상당히 축소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잡지내용을 보면 이전과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보여주며 초기에 제기한 "신민"을 위한 국민교양잡지로서의 성격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신민총보≫의 의미와 영향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신민총보≫는 그 체제와 내용 전반에 걸쳐 20세기 초(1901~1911) 가장 영향력 있던 중국 잡지였다. 중국 현대의 많은 지식인들의 회고록과 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신민총보≫가 한 세대와 한 시대를 창조했다는 후스의 표현은 결코 과장된 수사가 아니었다.

---

61) 이는 일본의 법학자 카케히 카츠히코(筧克彦) 관점에 근거한 것으로, 카케히 카츠히코의 개명전제론과 그것이 량치차오를 비롯해 당시 중국 혁명론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李曉東, <立憲政治與國民資格——筧克彦對≪民報≫與≪新民叢報≫論戰的影響>, ≪二十一世紀≫ 網絡版, 二〇〇七年九月號, 總第66期, 2007年9月30日. 참고. 또 카케히 카츠히코의 문장에 대해서는 비록 수 년 후의 강의록이기는 하지만 1905-6년도 강의록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筧克彦 述, ≪法學通論≫(日本大學43年度法科第1學年講義錄), 日本大學發行, 明治43年, 111~160쪽. 참고.

1896년 ≪시무보≫ 이후로 중국에는 수많은 잡지들이 발간되었지만, 량치차오가 평한 바와 같이 대부분 정론지이거나 외국신문이나 잡지를 번역하여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중 대다수의 잡지들이 단명하였다. 이에 비해 량치차오가 주편을 맡았던 ≪청의보≫와 ≪신민총보≫는 장기간에 걸쳐 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잡지의 종지와 체제가 명확하였고, 내용도 종합잡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신민총보≫는 이에서 더 나아가 한 정파의 기관지가 아니라 국민의 교양잡지로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취미를 위한 자료들도 제공하였다. 그러나 ≪신민총보≫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담은 교양잡지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현실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 그리고 변화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신민총보≫는 위로부터의 정치개혁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각성에 기반한 사회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정치개혁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단순히 제도상의 변화가 아니라 국민들의 자치능력에 기반한 근대적 국민국가를 지향점으로 삼고 있었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사회풍속과 국민의 심리적인 소질을 중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새로운 국민(즉 신민은 량치차오가 추구한 일종의 이념적인 상이다)이 근대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덕목을 제시하였다.

셋째, ≪신민총보≫는 단순히 서구적인 지식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서구의 근대적 관념과 시각을 참고하여 중국의 전통적인 학술과 역사를 재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는 역사를 통해 중국의 민족의식(중국혼)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중국의 역사상의 사상적・학술적 자원을 바탕으로 중국의 개혁담론을 구성하기 위함이었다.

넷째, ≪신민총보≫는 민기(民氣)를 고무하기 위한 서구사상의 주입(“能言之時代”)에서 “실행”을 목적으로 한 중국 실제문제 연구(“研究之時代”)로 전환을 이끌었다. 즉 순수 이론적인 차원에서의 새로운 사상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적 경험과 그 축적으로 형성된 현실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분석

www.kci.go.kr

하여 실현가능한 개혁방법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서구의 근대적 경험과 학술사상도 중국현실 조건에 비추어 재사고 되었으며,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더욱 명확해졌다.

그러나 이론적인 설명에서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 중점이 전환되면서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가 발생하여 동인들 사이에 분화가 발생하고 다른 정파적 입장과의 논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처음 국민잡지로서 출발한 ≪신민총보≫는 특정 정파의 입장을 주장하는 이른바 "당보(黨報)"로 변질 되었으며, 교양잡지에서 정론지로 변모되었다.

이러한 제반 특징들 외에도 ≪신민총보≫가 지닌 중요한 의미는 중국에서 새로운 잡지시대를 열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신민총보≫가 담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새로운 잡지의 방식을 통해서이다. ≪신민총보≫가 발간되고 나서 그 다음해 재일본의 중국 유학생의 잡지가 연이어 출현하였는데, 그 체제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신민총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浙江潮≫,[62] ≪江蘇≫,[63] ≪湖北學生界≫[64] 등이며, 이들 잡지는 정치사상적인 측면에서 혁명파의 입장을 견지하였지만 ≪신민총보≫와 같이 서구문명을 소개하고 민지와 민덕의 계몽을 위해 힘썼다. 이러한 잡지들은 당시 중국인의 계몽교육을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이었다. 근대적인 학당이나 교육체계, 지식체계가 확립되기 전에 국민교육을 이끈 것은 바로 신문과 잡지였는데, 그 중에서도 종합잡지의 역할은 지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유학생 조직에 기반한 잡지들은 필진구성과 자본력, 판매조직 등에 있어서, 정치조직과 출판사업,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신민총보≫와 비교하기 어려웠다.

---

62) 1903년(光緖二十九年)2월 17일 일본 도쿄에서 월간지로 창간되었다. 전체 12기를 발행하였으며, 져장(浙江)의 동향인들인 순익중(孫翼中), 쟝방젼(蔣方震), 마쥔우(馬君武), 쟝즈여우(蔣智由) 등이 주편을 맡았다.

63) 1903년 4월 일본 도쿄에서 출판된 월간지로서, 총 12기 발행하였다. 쟝쑤(江蘇) 동향인들인 친위류(秦毓鎏), 쟝쟈오퉁(張肇桐), 왕룽바오(汪榮寶) 등이 주편을 맡았다.

64) 1903년 1월 일본 도쿄에서 월간지로 창간되었다. 후베이(湖北) 유학생을 중심으로 발행되었으며, 제6기부터 ≪한성(漢聲)≫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주요 편집자는 왕징팡(王璟芳), 인위안이(尹援一) 바오얜스(寶燕石)였다.

마지막으로 ≪신민총보≫의 의미는 중국뿐만 아니라 구한말 조선인과 베트남의 계몽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구한말 시기에 ≪신민총보≫는 조선에 판매처를 두고 있었으며, 1905년을 전후하여 량치차오의 문장들이 본격적으로 소개되어 신채호, 안창호 등 많은 지식인의 애국계몽운동에 영향을 미쳤다.[65] 또 베트남에서도 1900년 이후 무술변법을 주도했던 캉여우웨이, 량치차오의 문장과 신서(新書)들이 소개되었으며, ≪신민총보≫는 베트남 민족주의 운동가인 판보이쩌우(Phan Bôi Châu, 潘佩珠, 1867~1940)에게 량치차오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역할을 하기도 하였다.[66] 이와 같이 ≪신민총보≫는 중국이 20세기 문명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였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근대적 계몽운동에도 이론과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 參考文獻 >

≪淸議報≫
≪新民叢報≫
≪浙江潮≫
≪江蘇≫
≪湖北學生報≫
≪譯書彙編≫
梁啓超著(1998), ≪新民說≫, 中州古籍出版社.
新會梁啓超任公著(1950), ≪自由書≫, 臺灣中華書局.
胡適(1933), ≪四十自述≫, 上海亞東圖書館版.
丁文江, 趙豊田編(1983), ≪梁啓超年譜長編≫,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吳宓著, 吳學昭 整理(1995), ≪吳宓自編年譜(1894-1925年)≫, 三聯書店.

65) 이에 대해서는 신승하, <舊韓末 愛國啓蒙運動時期 梁啓超 문장의 전입과 그 영향>, ≪亞細亞研究≫ 제100호, 1998.12, 217~234쪽; 우림걸, <20세기 초 양계초 애국계몽사상의 한국적 수용>, ≪한중인문학연구≫ 제8집, 2002.6, 15~39쪽. 참고.

66) 유인선, ≪베트남의 역사≫, 이산, 2002, 317~320쪽; 白石昌也, ≪ベトナム民族運動と日本・アジア――ファン·ボイ·チャウの革命思想と對外認識≫, 東京: 巖南堂書店, 1993, 131~135쪽.

李新 編著(1978), ≪吳玉章回憶錄≫, 中國青年出版社.
周作人(1999), ≪周作人文選: 自傳・知堂回想錄≫, 群衆出版社.
菲力普・肖特(2004), ≪毛澤東傳≫, 中國青年出版社.
康國雄, 何蜀 著(2005), ≪我的罪名蔣介石的干儿子≫, 中共党史出版社.
梁啓超(1996), ≪清代學術概論≫, 北京: 東方出版社.
張朋園(2007), ≪梁啓超與清季革命≫, 吉林出版集團.
鄭匡民(2003), ≪梁啓超啓蒙思想的東學背景≫, 上海書店出版社.
狹間直樹編(2001), ≪梁啓超・明治日本・西方≫,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李喜所主編(2005), ≪梁啓超與中國近代社會文化≫, 天津古籍出版社
黃克武(1994), ≪一個被放棄的選擇: 梁啓超調適思想之研究≫, 臺灣中研院近代史研究所.
張灝(1995), ≪梁啓超与中國思想的過渡(1980-1907)≫, 江蘇人民出版社.
筧克彦述(1910), ≪法學通論≫(日本大學43年度法科第1學年講義錄), 日本大學發行, 明治43年.
白石昌也(1993), ≪ベトナム民族運動と日本・アジア――ファン·ボイ·チャウの革命思想と對外認識≫, 東京: 巖南堂書店.
유인선(2002), ≪베트남의 역사≫, 이산.
劉珊珊(2010), <新民・新知・新文化: 新民叢報研究>(南開大學博士學位論文)
<上海四馬路新民叢報支店啓事>, ≪申報≫, 光緒三十二年三月一日(1906.3.25)
杜新艷(2008), <≪淸議報≫停刊考>, ≪雲夢學刊≫ 第29卷5期.
李曉東(2007), <立憲政治與國民資格――筧克彦對≪民報≫與≪新民叢報≫論戰的影響>, ≪二十一世紀≫ 網絡版, 二〇〇七年九月號, 總第66期.
胡適(1923), <胡適之的來信>, ≪努力周報≫ 第75期, 1923年10月21日.
李長莉(2004), <梁啓超論新民德与國民生計>, ≪近代史研究≫ 2004年03期.
신승하(1998), <舊韓末 愛國啓蒙運動時期 梁啓超 문장의 전입과 그 영향>, ≪亞細亞研究≫ 제100호, 1998.12.
우림걸(2002), <20세기초 양계초 애국계몽사상의 한국적 수용>, ≪한중인문학연구≫ 제8집, 2002.6.

www.kci.go.kr

< 中文提要 >

≪新民叢報≫是一部二十世紀初中國的最有影響力的雜志。這部雜志曾經被稱爲創造新時代和新的一代的雜志。這篇論文擬分析≪新民叢報≫的曆史上意義和性質, 主要從兩個方面上探討。一是從雜志的體例和作家的類型分析雜志的特征和面貌, 二是從<新民說>的內在的邏輯闡釋≪新民叢報≫思想和政治觀念的變化。作爲其結果, 關於≪新民叢報≫的性質, 這篇論文得到如下看法: 一, 中國第一個國民雜志, 二, 現代性的教養雜志, 三, 該雜志的宗旨只能適合於1904年以前的≪新民叢報≫。還有, 這篇論文進一步說明≪新民叢報≫對中國和東亞地區, 尤其是朝鮮和越南的愛國啓蒙運動的影響。

關鍵詞: ≪新民叢報≫、國民雜志、教養雜志、新民說、新民議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12. 31.	2013. 2. 1.	2013. 2. 12.	2013. 2. 21.	2013. 2. 28.

www.kci.go.kr